인문계열(오후)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모범답안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3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1]

(가)는 '홀로 있음'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홀로 있음'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개성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홀로 있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나)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혼족의 시대'가 확산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고독사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옹호)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혼자 행동하기 적합한 일에는 영화나 공연 관람, 쇼핑 등이 꼽히고, 혼자 하는 이유로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고, 혼자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외톨이라고 여겨질 때 생기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421자)

(비판)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즉 20대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뭐든 혼자 해결하는 '혼족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비단 사회적 전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요즘,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419자)

[문제 2]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1]

①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해야 하고, 이러한 비교 결과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②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종 사이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화재규모가 클수록 소방관이 많이 출동하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소방관이 화재 손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화재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큰 화재 손실을 본 것이다. (399자)

[문제 2-2]

① (다)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이유가 소득수준 때문인지 연령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② 신문기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세 주장의 공통점은 피상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인종을, 두 번째 주장에서는 소방관의 수를, 세 번째 주장에서는 소득수준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이유(변수)들이 결과(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411자)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후) 채점기준

2021학년도 인문계열(오후)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1-1]
(가)는 '홀로 있음'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홀로 있음'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개성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홀로 있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나)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생기는 피로감 때문에 '혼족의 시대'가 확산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고독사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11자)

[문제 1-2]
(옹호)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혼자 행동하기 적합한 일에는 영화나 공연 관람, 쇼핑 등이 꼽히고, 혼자 하는 이유로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고, 혼자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외톨이라고 여겨

질 때 생기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421자)

(비판)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즉 20대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뭐든 혼자 해결하는 '혼족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비단 사회적 전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요즘,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419자)

3. 세부 지침

[1] 내용면 ---------- 문제1-1, 1-2 각 20점, 총40점

[1-1] '홀로 있음'에 대한 두 입장을 비교 -------20점

□ (가)와 (나)의 대조적인 입장을 뚜렷이 드러냈는가? (4점)
- 대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문장, 어구 등)이 있으면 4점
- 대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내용(문장, 어구 등)이 없으면 0점
  (예: (가)는 '홀로 있음'을 긍정적으로 파악, (나)는 '홀로 있음'을 부정적으로 파악)

(가)를 다루면서
□ 사람들이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가? (4점)
-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홀로 있음'의 장점을 언급하였는가?(4점)
- 개성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2점

(나)를 다루면서
□ 최근 각박한 현실로 인해 '나 혼자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가?(4점)
- '나 혼자 문화'의 확산 '현상'을 언급하면 2점
- '나 혼자 문화'의 확산 '원인'을 언급하면 2점

□ '나 혼자 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함께' 또는 '더불어'의 가치를 강조하였는가?(4점)
- '나 혼자 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 2점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로 '함께' 또는 '더불어'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면 2점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 또는 (나)를 근거로 활용하여 옹호하거나 비판한 경우 ---------- 20점

<옹호의 경우>

□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가?(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대의 특성(개성이나 취향을 중시함)을 규정하면 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만 20대의 특성을 규정하지 않으면 5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20대의 특성을 규정하면 5점
- 설문조사 활용이 없고 20대의 특성 규정도 없으면 0점

□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삼았는가? (10점)
- 혼자 있음이 ①개성(취향, 특성), ②(정신적) 자유의 증대와 연결되었는가? ③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판(극복)하는가?

3개를 활용: 10점
2개를 활용: 7점
1개만 활용: 4점
0개 활용: 0점

<비판의 경우>

□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가?(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20대의 특성(혼자가 편함, 남들과 있으면 불편함)을 규정하면 10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만 20대의 특성을 규정하지 않으면 5점
-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20대의 특성을 규정하면 5점
- 설문조사 활용이 없고 20대의 특성 규정도 없으면 0점

□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삼았는가? (10점)
- 혼자 있음이 ① 고독사 등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가? ② 가까운 친구나 이웃 등 개인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가? ③ '함께'나 '더불어'의 가치가 언급되었는가?

3개를 활용: 10점
2개를 활용: 7점

1개만 활용: 4점
0개 활용: 0점

[2] 표현면 ---------- 문제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총10점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1-1, 1-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3]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5점 감점

[문제 2]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2-1]

①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해야 하고, 이러한 비교 결과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인종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②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종 사이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화재규모가 클수록 소방관이 많이 출동하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소방관이 화재 손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화재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큰 화재 손실을 본 것이다. (399자)

[문제 2-2]

① (다)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이유가 소득수준 때문인지 연령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② 신문기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세 주장의 공통점은 피상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인종을, 두 번째 주장에서는 소방관의 수를, 세 번째 주장에서는 소득수준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이유(변수)들이 결과(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411자)

3. 세부 지침

[1] 내용면 ----------문제 2-1, 2-2, 각 20점, 총40점

[2-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잠복변수를 발굴하는 능력과 잠복변수 통제를 통한 독립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 분석 능력 평가 ----------20점

①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슷한 백인과 흑인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백인과 흑인의 성적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② 같은 인종을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SAT 성적도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③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소방관 규모(독립변수)와 피해액수(종속변수)를 매개하는 다른 이유들(화재규모, 출동시간, 기타 등등)을 원인으로 제시 (8점)

[2-2]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잠복변수의 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평가----------20점

①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득과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적 (6점)
② 소득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대에서 소득 차이에 따른 정당지지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 지적 (6점)
③ 세 주장 모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돈하고 있으며, 독립변수(제시된 원인)가 아니라 잠복변수(다른 원인)가 종속변수(결과)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 지적 (8점)

[2] 표현면 ----------문제 2-1, 2-2, 각 5점(상: 5, 중: 3, 하: 0)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사용
② 문장력: 문법적인 문장 구사
③ 단락구성력: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성

※ 감점 사항

1 문제 2-1, 2-2 각각 분량 5점 감점
- 300자 미만인 경우
- 500자 초과인 경우

2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